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

한정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eong-Won Han*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meaning and nature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Methods: In this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an in-depth interview were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8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mong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20, those who ar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s, have experienced injurie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and those who have been injured for more than 6 month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1st May 2021 to 30th September. The in-depth interview with research participants took approximately 30 minutes to 90 minutes on average.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eleven thematic collections, and 27 themes. The Five categories were 'maze with no exit', 'erased existence', 'impenetrable barrier', 'tightly closed iron gate', and 'overcoming reality hurdles'.

Conclusions: This study can help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s by tak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t suggests the need for program interven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s well as an institutional approach toward these targets.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s, psychological health, PTSD, qualitative research, workers' compensation

I. 서 론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생산 활동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1).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58,670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3.3%(6,873명) 증가하여 49,046명이라고 발표하였다(KOSHA, 2021).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추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낙상, 끼임, 협착, 절단 등이 주로 발생한다(MoEL, 2021).

건강하던 근로자가 의도치 않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Schottenfeld & Cullene, 1991).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은 갑작스러운 외상사건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다(APA, 2013). 근로자는 산재와 같

*Corresponding author: Jeong-Won Han, Tel: 054-479-4011, E-mail: gsmdr@naver.co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730 Gangdong-ro, Sandong-eup, Gumi-si, Gyeongsangbuk-do 39160
Received: November 17, 2021, Revised: December 7, 2021, Accepted: December 21, 2021

 Jeong-Won Han <http://orcid.org/0000-0002-3608-6075>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신체 손상 및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Han & Lee, 2018) 직장으로서의 복귀에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및 동료와의 갈등, 사회부적응, 일상생활 부적응 등이 있으며, 심리 사회적인 문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Auxéméry, 2012; Shin & Kim, 2015). 특히 산재근로자는 산재 초기에 신체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우울, 두려움 등과 같은 문제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Shin & Park, 2014).

실제로 산재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PTSS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상생활 뿐 아니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의 능력저하, 이직, 조기 퇴직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직무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Lee & Joo, 2013; Kim et al., 2016; Han & Lee, 2018). 이처럼 PTSS는 산업재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근로자가 의료적인 처치가 끝나고 원 직장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Baldwin & Butler, 2006). 특히, PTS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까지 자신이 경험한 외상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은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들의 회복 의지와 앞으로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재근로자들이 그들의 삶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양적연구는 주로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원직장 복귀, 회복 탄력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진행되어 왔으며(Jang & Yeum, 2015; Shin & Kim, 2015; Han & Lee, 2018; Kim, 2018; Thomée & Jakobsson, 2018), 질적연구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오명과 차별(Kirsh et al., 2012), 심리적 적응(Lee & Suh, 2014), 직업 복귀 후 적응(Kim et al., 2020) 등으로 삶의 적응과정과 정신적 지지에 중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양적으로 분석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경험의 본질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심리적 관점에서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주제에 맞게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적절성과 충분한 자료가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충분성에 의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을 경험이 있는 자, 산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다. 산재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선행연구(Nydegger et al., 2011; APA, 2013)에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6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Table 1과 같이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6명, 여성 2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46.38세로 30대 3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이었다. 이들이 종사하던 업종은 제조업 2명, 건설업 3명, 생산업 2명, 기타 직업이 1명이었으며,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일용직 3명이었다. 사고 원인은 추락이 3명, 낙상 1명, 끼임 2명, 골절 1명, 절단 1명, 물체 맞음 1명이었다. 산재 부위는 손과 어깨가 3명, 발, 다리 및 고관절 4명, 눈 1명이었다. 산재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사이 2명,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 2명, 2년 이상 4명이었고, 산재보험 여부는 있다는 7명, 없다는 1명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9월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Gender	Age (year)	Employment contract	Industry sector	Types of accidents	Body injury locations	Length of injur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1	M	46	Regular worker	Construction	Falling	Leg	≥2 y	Y
2	M	34	Regular worker	Manufacturing	Crushing	Shoulder	1y-2y	Y
3	M	38	Contract worker	Manufacturing	Crushing	Hand	≥2 y	N
4	F	53	Contract worker	Production	Amputation	Finger	6m-1y	Y
5	F	36	Contract worker	Production	Objective strike	Eye	1y-2y	Y
6	M	44	Day labor	Construction	Falling	Leg	≥2 y	Y
7	M	57	Day labor	Other	Slip	Feet	6m-1y	Y
8	M	63	Day labor	Construction	Falling	Leg	≥2 y	Y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구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병원과 구미지역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기관 관계자로부터 연구진행의 허락과 협조를 얻었으며, 연구자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일대일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제공해 준 조용한 회의실이나 참여자의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참여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는 지 확인을 한 후에 “산재근로자로서 어떠한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을 하셨습니까?”, “외상 경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1회당 소요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90분이었고, 참여자마다 평균 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대면 심층면담으로, 2차 면담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시 질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점차 연구주제와 관련 내용을 질문하여 참여자들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참여자의 진술을 집중해서 듣기만 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의 표정, 면담 태도, 비언어적 표현들을 현장 노트 및 메모 등을 이용하였고, 모든 내용은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필사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현상학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우선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경청하면서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산재근로자의 경험에 대해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료를 철저하게 반복하여 읽고 이해하였다. 그다음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연구자의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서 추상화된 주제모음을 범주화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의 총체적인 기술을 통합한 후에 최종 진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주제에 맞게 분석방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였으며,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분석결과를 확인받았다. 적합성은 적절한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료의 포화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서 분석방법에 따라 충실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윤리심의위원회

(IRB No. KW-2021-A-4)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녹음과 기록, 개인의 비밀, 익명성 보장과 면담 중간에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면담 과정 중에 과거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발생하는 정서의 변화나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발생된 부작용의 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III. 결 과

1.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을 Colaizzi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7개의 주제, 11개의 주제 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범주: 출구가 없는 미로

(1) 기억 지우기

이 주제 모음은 사고 당시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함, 사고와 비슷한 환경에 두려움을 느낌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겪

Table 2.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stress by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Maze with no exit	Memory erasure	I can't remember when the accident happened
		Feeling fear in an environment similar to an accident
	Hearts in darkness	Anxiety about having to live with a disability
		Inability to carry out daily life
Erased Existence	Low self-esteem	Inability to act as head of household
		My self-esteem was lowered by ignored of my family
	Vanishing existence	Being ignored by co-workers at work
		Loneliness like being alone in the world
		Feeling left out at work
Impenetrable Barrier	Barriers to poverty	Difficulty in sustaining their livelihoods
		The frustrating reality of declining income
	Barriers to employment	Difficulty getting a previous job
		Feeling hopeless about your job search
Tightly closed iron gate	A company turning away from me	Reluctance to pay compensation
		company's rude attitude
	Difficulty in the workers' compensation procedure	Complex Workers' Compensation Process
		Difficulty in applying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fficient treatment and compensation problems
	Trapped in the present	Difficulty accepting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Giving up hope		
Overcoming reality Hurdles	Preparation to overcome hurdles	Rehabilitation training to overcome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stability
		Being determined to stand up again
	Starting line again	Participate in a return to work program
		Start looking for a new job

은 그 순간에 대한 기억하기를 꺼려 하였으며, 가끔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환경, 또는 누군가 사고를 당한 것을 봤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사고가 회상되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생각 안하고 싶지요. 아무것도.. 평소에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자꾸 나요. 자꾸 잡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 같은 것도 들고, 상상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또 다치는 거 아닌가 싶고(참여자 2).

너무 힘들죠. 지난번 길을 가는 데 엠블런스 소리가 마~악 나는 거예요. 그때 아! 누가 나처럼 다쳤는갑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고, 내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고요(참여자 1).

(2) 어둠에 갇혀버린 마음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됨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사고 이후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이 있었다. 또한, 사고 이후 달라진 신체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다.

정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장애자로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길 가다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여사로 본다 아임니까. 근데, 내가 그래되면 우짜노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참여자 1).

친구들이 오는 것도 사실.. 위로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오면 빨리 속으로 빨리 안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말 상대하기도 싫고(참여자 6).

2) 범주: 쓸모에서 지워진 존재

(1) 낮아진 가정의 어깨

이 주제 모음은 가장을 역할을 할 수 없음, 가족의 무시로 낮아진 자존감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산업재해 이후 달라진 자신의 위치에 대해 무능하다는 느꼈으며 점차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저는 일용근로 건설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일을 안하면 가족들이 살아가기 좀 힘들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힘들죠. 이게 장기로 가니까. 처음에는 다들 걱정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빙시되가 일하겠나 하면서 집사람도 한숨만 쉬죠(참여자 8).

손가락이 하나 없으니까. 손가락을 쳐다보면 자꾸 가리게 되고. 식구들 반응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자꾸 손을 숨기게 되요. 내가 일거리 찾으려고 하면 손가락 없는데 누가 써주냐고.. 그런 말도 하고.. 눈물 밖에 안나죠(참여자 4).

(2) 사라져가는 존재

이 주제 모음은 동료에게서의 무시,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직장에서의 소외감이라는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장애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이전에 믿었던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반응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사고와 관계된 동료들이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병원에 방문한다든지 전화한다든지 그런 걸 해주야 되는데 모른 척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 같아서(참여자 1).

그냥~명 하게 앉아있어요. 외롭죠.. 누가 제가 다친 걸 신경 쓰나요? 아무도 안 써줍니다. 와이프도 이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어떤 때는 TV보다가 울기도 하죠. 소리도 못 내고(참여자 2).

사람들이 쪼매만 다치도 산재 해달라라고 그만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러는 거 아인가.. 동료들이 제가 전에 직장에서 산재였다는 거 알고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안좋죠(참여자 6).

안 시켜요. 아~니는 이거 하지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다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위한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는 거 같고, 눈치도 보이고(참여자 3).

3) 범주: 넘을 수 없는 벽

(1) 빈곤이라는 장벽

이 주제 모음은 생계유지의 어려움, 수입감소로 답답한 현실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치료나 재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양육이나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초조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애기가 지금 2살인데, 애기가 아팠었는데(울음) 애기 병원비를 못냈어요. 그걸 교회 목사님이 대신 내준 적도 있었어요(참여자 5).

많이 줄었죠. 산재보상에서 주는 그 급여는 70%밖에 안줘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을 안하면 힘들죠. 그게 얼마 됩니까? 그거 받는 거보다는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죠. 뭐..할마이도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간다고 누가 돈을 줘니까? 요즘은 대출도 힘들다카는데(참여자 7).

(2)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

이 주제 모음은 이전직업을 가지기 어려움, 구직활동에 비참함을 느낌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기계를 다루는 작업을 하였고 때문에 업무 복귀하더라도 신체적 기능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 문제로 예전보다 작업 수행이 어려움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래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싶고. 뭐~두드리고 돌리고 해야 하는데. 팔이.. 일단 팔이 안 올라가니까 그게 답답한거죠. 마음은 되지만 마음은 다 되는데(참여자 2).

공고 올라오면 이력서 쓰기는 하죠. 그런데, 장애라는 그런 거.. 거기에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또 회사에서 산재했다 그러면 좋아하지도 않고. 보통회사들이 산재라 하면 회사에서 잘 안해줄라 해요. 또 다치부면 산재해돌라 할끼고, 그러면 자기네들 등급 내려가니까 싫어하죠(참여자 3).

4) 범주: 굳게 닫힌 철문

(1) 등 돌리는 회사

이 주제 모음은 산재보상을 꺼림,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저보고 꼭 산재 해야겠냐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기들 입장 얘기하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계속 회사 다녀야 하고 하니까, 그러자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치료받고 그랬죠. 사실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자..카는데 그거 안들어주면 내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요(참여자 3).

아니, 뭐..내가 다른 걸로 다친 것도 아니고, 작업하다가.. 작업하다가 거기서 떨어진건데, 그걸 빨랑 안해주고, 휴식시간도 아니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또 요새는 출퇴근도 인정해준다 카는데. 신속, 정확하게 해주야 되는데. 산재도 거의 뭐. 거의 한 20일쯤 되자 산재로 바뀌주고(참여자 1).

(2) 산재보상절차의 어려움

이 주제 모음은 복잡한 산재보상의 절차, 산재보상 신청의 어려움, 미비한 치료와 보상문제라는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절차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산재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산재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적 기능손상이나 장애에 비해 치료 및 요양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여자니까.. 더 힘들었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는데도 있지만, 저는 교회 목사님이 다 도와줬어요.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산재처리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참여자 5).

산재 홍보가 우리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영 안되었어요. 저는 모든 절차나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송이나 산재처리 해주고 보험돈을 받아주고 하는 의료브로커라고 있어요. 여기 입원해가 있으면, 여기저기 병실 돌아다니면서 명함 주고, 우리끼리 서로 소개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절차 밟아가 알아서 다 해 주더라고요(참여자 8).

(3) 간혀버린 현재

이 주제 모음은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희망을 포기함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였고, 달라진 모습에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현을 하였다.

여기 철판 박아 논거는 못 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받아주겠어요. 건설일을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힘든 거죠. 다리가 이렇고 한테. 사고가 나니까 내 스스로가 더 위로가 안되죠. 저래했으면 안

다쳤을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참여자 1).

고마 죽었으면 깨끗할 텐데..고통도 없고 그럴텐데.. 그런게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좀 없어졌다고 그러냐?(참여자 6).

5) 범주: 현실의 허들넘기

(1) 허들을 넘기 위한 준비운동

이 주제 모음은 극복하기 위해 재활훈련을 함, 다시 일어서려고 마음을 다짐, 심리적 안정이 된 상담이라는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에 집중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상담사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치료사가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달이나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도 혼자 이거 붙들고 빙빙 돌고(참여자 6).

아이 때문이라도 빨리 나아야죠. 처음에는 앞이 하나도 안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경제가 힘드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하고 딸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살아야죠(참여자 4).

상담사 선생님이 환자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인 거, 환자와 마음을 동일시하더라고요. 동일시하고 나서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온화화 됐을 때 위로의 말이나 또 앞으로의 말이나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요(참여자 7).

(2) 다시 출발선

이 주제 모음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함, 직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라는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음가짐 같아요. 본인 마음가짐..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안 좋은 생각들만 하거든요. 요즘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치기 전에는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여기서 나가면 병원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으로 사귀 외국 친구들과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참여자 8).

산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산재 들어가 가지고 찾다가 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해 가지고 가서 배우고 했죠. 거기서 조무사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간호산데, 저도 이거 배우고 하고 나면 같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참여자 2).

IV. 고 찰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을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서 산업재해로 외상을 경험하고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재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은 ‘출구 없는 미로’, ‘쓸모에서 지워진 존재’, ‘넘을 수 없는 벽’, ‘굳게 닫힌 철문’, ‘현실의 허들넘기’의 5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 27개의 주제로 규명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출구 없는 미로’로 기억 지우기, 어둠에 갇혀버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공포, 두려움, 불안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재해 직후 겪게 되는 심한 정신적 충격은 Lee & Suh(2014)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PTSD유무를 조사한 연구에서 근로자가 PTSD를 경험하고 있었다(Choi et al., 2002; Chang et al., 2009; Han & Lee, 2018).이들은 스스로 사고를 당한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PTSS으로 인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중재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 범주는 ‘쓸모에서 지워진 존재’로 낮아진 자아의 어깨, 사라져가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가장으로써 더 이상 가족들을 책임지고 이끌 수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좌절감, 신체장애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

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고, 주변에서도 조차 이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실망 혹은 자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적 낙인으로 취급받은 경험을 하였다는 Kim & Lee(2018)의 연구와 신체의 모습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편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Han(201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오히려 이들의 심리적 상실감을 가중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Jeon et al., 2010), 산재근로자는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PTSS와 정신적 우울감, 불안 및 좌절감 등으로 상병의 회복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다(Han & Lee, 2018). 이처럼 산재근로자들이 느끼는 치료결과에 대한 불안, 고통에 대한 대처방식, 업무복귀 및 이들을 대하는 차별과 배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재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범주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빈곤이라는 장벽과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냥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구직을 하려고 하지만, 직업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Park, 2013; Bunzli et al., 2017; Lee et al., 2018)들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된 PTSS 증상을 돕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울러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범주는 ‘굳게 닫힌 철문’으로 등 돌리는 회사, 산재보상절차의 어려움, 간헐버린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사고 이후 그에 따른 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Oh(2018)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본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직업성 손상을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결국은 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제대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사업장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Jwa et al., 2013).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률적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현실의 허들넘기’로 허들을 넘기 위한 준비운동, 다시 출발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손상이나 장애 부분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매우 고단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실 앞에 나타나는 허들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넘기 위한 준비는 극복의 열쇠인 셈이다. 또한, 따라서 산재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순간들을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기능적 손상으로 일상으로 복귀, 원 직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직업 재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회복과 극복에 대한 기대감은 자기 상태에 대한 정보와 적합한 재활을 제공 받았을 때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Park, 2014). 회복과 극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들이 다시 일하려고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초기 응급조치부터 치료과정의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그리고 사회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Choi YY, 200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근로자들이 재취업 이후에 원활하게 직장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시점부터 이러한 직업재활을 추진할 수 있는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신의 자기효능감이나 대처기술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경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해하고 기술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업무상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겪게 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행

되었다. 연구결과 산재근로자들은 사고 이후 변화된 자신의 신체적 기능손상이나 장애로 인하여 온전한 일상 생활로의 복귀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였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재활 간호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 간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여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위주의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일부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신체 부위의 손상을 입은 산재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을 추가로 연구하여 분석한다면, 산재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p. 271-80
- Auxéméry 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s a conseque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an individual genetic susceptibility, a traumatogenic event and a social context. *L'Encephale* 2012; 38(5):373-380 (<http://doi.org/10.1016/j.encep.2011.12.003>)
- Baldwin ML, Butler RJ. Upper extremity disorders in the workplace: Costs and outcomes beyond the first return to work. *J Occup Rehabil* 2006;16(3):296-316 (<http://doi.org/10.1007/s10926-006-9043-2>)
- Bunzli S, Singh N, Mazza D, Collie A, Kosny A, et al. (2017). Fear of (re)injury and return to work following compensable injury: Qualitative insights from key stakeholders in Victoria, Australia. *BMC Public Health* 2017;17(1):1-9 (<http://doi.org/10.1186/s12889-017-4226-7>)
- Chang CM, Choi NH, Kang HS, Park SH. The Levels of Impacts of Event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jured Worker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9;20(2):234-242
- Choi KS, Lim CK, Choi JW, Kang SK, Yum Y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occupational accident 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3):461-471
- Choi YY. A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Policy in German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005;2(2):35-62
-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 Han JW, Lee BS. The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on Quality of Life in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Effect of Recovery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 19(4):167-177 (<http://doi.org/10.5762/KAIS.2018.19.4.167>)
- Han JW. Post-traumatic stress coping process for occupational injured worker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9.
- Jang YM, Yeum DM.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 and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 of RWEAT* 2015;9(4): 275-283
- Jeon BY, Kwon SM, Cho BH, Lee TJ.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10;26(2):199-222
- Jwa HK, Yim J, Cheong W. The Estimation for the Financial Los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e to the Inappropriateness of Claim Procedures, and the Reform for the National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JCSW* 2013;39:274-296
- Kim KR, Lee MW. A Study on the Resilience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 Hermeneutical grounded theory methodology -.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2018;61(3): 91-119 (<http://doi.org/10.20971/kcpmd.2018.61.3.91>)
- Kim M, Leierer SJ, Atherton WL, Toriello PJ, Sligar SR. The mediating influence of treatment participation rate on post-treatment employment.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016;60(1):51-60 (<http://doi.org/10.1177/0034355215610068>)
- Kim SH, Lee JE, Leigh JH.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work of workers with industrial accidents. *Disability & Employment* 2020; 30(1):121-158 (<http://doi.org/10.15707/disem.2020.30.1.006>)
- Kim YC.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JMAHS* 2018;8(3): 813-822 (<http://doi.org/10.35873/ajmahs.2018.8>)

- 3.076)
- Kirsh B, Slack T, King CA. The nature and impact of stigma towards injured workers. *J Occup Rehabil* 2012; 22(2):143-154 (<http://doi.org/10.1007/s10926-011-9335-z>)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Law No. 9988) [Accessed 2021 Nov 1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317&lsId=001760&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end of June 2021. [cited 2021 Oct 26]; Available From: <https://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No=42534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Lee CH, Joo SB.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relationship between PTSD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focused on Korea coast guard officers. *KJV* 2013;21(2):335-362
- Lee HK, Suh KH.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Injured Workers. *Kor J Psychol: Health* 2014;19(1):431-442 (<http://doi.org/10.17315/kjhp.2014.19.1.024>)
- Lee MN, Chang EJ, Lee MY. Concept Maps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Coping Mechanisms that Occupational Hazar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atients have Experienced. *J Social Science* 2018;29(2):3-24 (<https://doi.org/10.16881/jss.2018.04.29.2.3>)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2014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cited 2017 November4]; Available From: http://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1449549370858
- Nydegger R, Nydegger L, Basile F.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ping among career professional firefighters. *AJHS* 2011;2(1):11-20 (<https://doi.org/10.19030/ajhs.v2i1.4365>)
- Oh SH. Legal Issues and Tasks on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Injuries. *Labor Law Review* 2018;44: 83-116 (<http://doi.org/10.32716/LLR.2018.03.44.83>)
- Park SK.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injured workers with disabilities returning to work in South Korea : Comparison of return to pre-injury job with work at a new fir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3;37:149-174
- Park SK. Associ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Patients with On-the-job Injuries in South Korea. *KRCM* 2014; 10(2):85-103
-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NS* 1986;8(3):27-37 (<http://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Schottenfeld RS, Cullen MR. Recognition of occupation induc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J Occup Med* 1991;28(5):365-369
- Shin HR, Kim MI.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turn-to-work: Analysi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J Vocat Rehabil* 2015;25(1):105-130 (<http://doi.org/10.24226/jvr.2015.04.25.1.105>)
- Shin JE, Park BJ. 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Expressive Arts Therapy on Reducing PTSD Symptoms in Industrial Accident Victims. *Korean J Counsel Psychotherapy* 2014;26(3):683-711
- Tedeschi RG, Calhoun L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 Inq* 2004;15(1):1-18 (http://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Thomée S, Jakobsson K. Life-changing or trivial: Electricians' views about electrical accidents. *Work* 2018;60(4):573-585 (<http://doi.org/10.3233/WOR-182765>)

<저자정보>

한정원(조교수)